

성폭력 실태 비슷...전세계적 연대 결의

샌프란시스코 워크숍 참가 최 영 애씨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세계 성폭력상담소 워크숍'에 참여하고 돌아온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40) 소장을 만났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워크숍에 참여한 세계각국의 성폭력실태가 거의 똑같아 성폭력은 세계 공통의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한 점입니다. 앞으로 각국의 성폭력 사례에 전세계적으로 연대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한 것이 이번 모임의 큰 성과였다고

여성운동을 지원하는 단체로 한국성폭력상담소에도 올해부터 매년 5천달러(3백6십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모임결과, “80년대초부터 세계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성폭력상담소가 부딪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문제와 여성에게 차별적인 강간법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의 문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간·구타 피해여성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상



25개국 상담소대표 참여...재정해결 어려움

볼 수 있지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필리핀,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브라질 등 25개국 성폭력상담소 대표가 참여하여 성폭력 해결전략을 모색한 이번 모임은 미국에 본부를 둔 '여성을 위한 세계기금'에 의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88년 만들어진 '여성을 위한 세계기금'은 미국내 각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전세계

담소를 24시간 풀가동해야 할 뿐아니라 치료소·대피소 등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

최 소장은 “각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통해 후원하는 방법, 법정소송을 위해 법원에 내는 착수금의 이자를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사회운동단체를 지원하는 일이 늘기를 기대했다.

참여자들은 여성에 차별적인 강간관련법을 바꾸기 위해 각국 법안을 비교하고 개정운동도 연대사업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최 소장은 “브라질 등 남미에서는 11월15일을 '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해 성폭력 문제를 크게 사회여론화시키고 있더군요. 우리도 '성폭력'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날을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경 기자〉